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성황리에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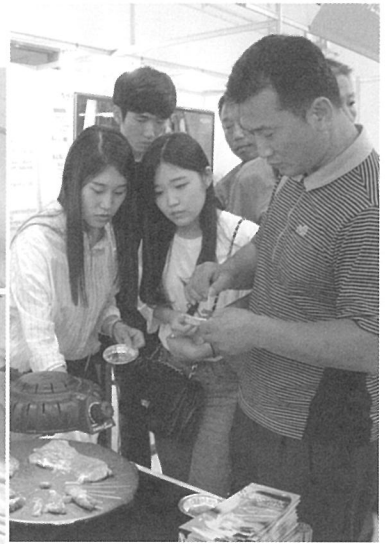
263개 업체 890개 부스·관람객 9만4천여명 역대 최대규모
친환경·ICT 축산 미래상 제시
우수 전시업체 대상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통령상 영예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박람회 사무국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한 이번 박람회에 축산농가와 소비자 총 9만4천 명이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유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우유 아이스크림 제공행사

▼협회 경북도지회가 운영한 우유·유제품 홍보행사 부스의 모습



▲육우고기를 시식 중인 참가객들

농식품부와 6개 생산자단체(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공동 주최로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10개국 263개 축산업체에서 890여개 부스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졌다.

대한민국 유일의 축산전문 박람회로서 ‘친환경 안전 축산, 세계로! 미래로’란 주제 아래 ICT 융·복합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축산 관련 제품을 비롯해 생산성 향상과 동물복지, 친환경,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기술이 대거 선보이면서 행사장을 찾은 양축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기간동안 구제역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도널드 킹 소장을 초청해 FMD 국제포지엄이 낙농·한우·한돈농가들의 참여 속에 개최되었고 FTA 개방시대 국내 축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19건의 세미나가 축종별로 이어져 국내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축산물 인식개선 캠페인>, <축산물 소비 시사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and 축산업계간 소통의 장도 마련되었다.

이 기간 중 우리협회와 우유자조금사무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체부스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위해 참가객들을 대상으로 우유아이스크림을 제공하였다. 협회 경북도지회에서는 육외부스에서 우유 및 유제품 시식행사를 전개하였으며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육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육우고기 시식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9월 9일 개막식 직후에 진행된 우수축산인 시상에서는 농식품부장관상에 협회 김성민 이사가, 단체장상으로는 청년분과위원회 이영병 부위원장이 수상했다. 또한 9월 11일 열린 폐막식에서는 우수전시업체 대상으로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이보균)가 대통령상 수상

의 영예를 차지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은성테크, 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현대축산 ▲알파축산 ▲하농, 우수제품상(공동주최단체장상)은 ▲송강지엘씨 ▲애닉스 ▲대구특수기공사 ▲삼성엔지니어링 ▲태한보시스템 ▲가람이엔지 ▲삼양애니팜 ▲하늘 ▲동화축산 ▲누리가온(티시)이, 특별상(대구광역시장상)은 황소농기계가 수상했다. ☺